제1차 아시아공증인포럼 참관기[1)]

안 원 모
대한공증인협회 총무이사

Ⅰ. 처음에

지난 2010년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국제공증인협회와 일본공증인연합회가 공동 주최하여 제1차 아시아 공증인 포럼이 개최되었다. 국제공증인협회(UINL)는 전 세계 77개국의 공증협회를 회원단체로 갖고 있는 공증인의 국제 단체로서 공증제도의 국제적 기준 확립과 공증인의 친선 도모, 교류, 각국 공증제도의 개발, 발전 등을 위한 공동연구 등을 하고 있는 전통있는 국제기구의 하나이다.

일본공증인연합회는 1977년 UINL에 가입하기 수년전부터 옵서버로 참가하는 등 오랜 사전 준비를 하였고 가입 후에도 위 회의에 정기적으로 다수의 일본공증인들이 참가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UINL에 가입된 아시아 지역의 국가로서는 일본(1977), 중국(2003), 인도네시아(1997)가 있을 뿐이지만 대다수의 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나름대로의 공증제도를 유지하면서 그 개선, 발전을 도모하고 있고 국제적 협력에 대한 기대도 큰 상태이다. UINL

1) 위 참관기는 법률신문 제317호 2010. 8. 23.(목)자 11면에 게재되었던 내용으로, 협회 국외 활동 자료로 보존하기 위하여 재게재합니다.

가입국들은 각 대륙 별로 지역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지역별로 활발한 교류활동을 하고 있는 바, 아시아 지역은 아직 가입국의 수가 적은 탓에 지역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

이에 UINL은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공증제도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아시아 지역 공증단체들의 국제기구 가입을 촉진할 목적으로 일본공증인연합회의 도움을 받아 이번 포럼을 개최한 것이고 대한공증인협회도 초청을 받아 김진환 수석부협회장과 총무이사인 필자가 참석하게 되었다.

대한공증인협회는 수년전 UINL에 가입 신청을 하였고 수년간의 제도 조사 기간을 거쳐 금년도에 최종적으로 가입 여부가 결정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금년 10월 모로코의 마라케쉬에서 개최되는 총회에서 가입이 결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Ⅱ. 아시아 공증인 포럼의 진행과정

2010년 7월 18일 저녁 7시 동경 시내 오데마치의 오데마치 퍼스트 스퀘어 웨스트 타워 23층에 위치한 레스토랑 우타게에서 리셉션을 겸한 모임이 개최되었다. 동 모임은 호스트인 일본공증인연합회와 UINL 집행부가 주최한 것으로서 참가국 대표들 간에 서로 얼굴을 익히고 인사를 하거나 명함을 교환하는 자리였다.

이번 포럼에는 주최국인 일본 외에 대한민국, 중국, 몽골,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9개국에서 참가하였고, UINL의 집행부에서는 회장인 아르헨티나의 에두라르도 갈리노, 중남미지역 부회장인 멕시코의 프란스시코 갈방, 직전 회장인 독일의 헬무트 훼슬러,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인 프랑스의 장 폴 드꼬르, 운영위원인 가니우 아데씨, 모로코의 후신 세푸리우이등 집행부 주요 인원이 전부 참석하여 이번 포럼에 대한 높은 기대를 나타내었다. 참가 인원의 면모를 보면 일본공증인연합회에서 히로아끼 사사끼 회장을 비롯하여 24명이 참가하였고 중국에서는 왕푸지아 중국 공증인회 부회장 등 4명이 참석하는 등 각 국가에서 3명 내지 5명씩의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공증인들만 참석한 국가도 있었고 공증인과 법무부의 담당 국장들이 참석한 나라도 있었다. 아직 공증인 제도가 없는 태국에서는 공증인 제도를 곧 도입하면서 이를 위한 연구, 조사 목적에서 법무부의 담당 국장이 참석하였다. 결국 아시아 지역의 공증인 또는 공증을 규율하는 법무부 관계자들은 대부분 참석한 것이다.

종래 우리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공증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포럼을 통하여 그와 같은 인식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동남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도 부지런히 우리나라를 뒤쫓아 오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다음날인 2010년 7월 19일 오전 9시부터 동경 가스미가제끼의 가스미가제끼 빌딩 35층에 위치한 도카이대학교 교우회관에서 일본공증인 세이지 구라타가 유창한 영어로 사회를 보면서 본격적으로 포럼이 시작되었다.

갈리노 UINL 회장과 사사끼 일본 협회장의 간단한 환영사가 있은 후 일본 법무성 민사국장이 법무상의 환영사를 대독하였다. 일본을 필두로 각 참가국의 공증제도 및 현황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그 내용은 ① 공증제도의 개요와 공증의 역할, ② 규율 당국 (법무부)과의 관계, ③ 현안 문제, ④ 장래 계획, ⑤ 전자공증, ⑥ 현재 및 장래의 국제적 협력관계 등에 대한 것으로서 각 국별로 약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각 나라 별로 제도와 현황을 소개하고 다른 참가국들이 질문을 하는 형식이었는데 당초 생각한 것보다 공증제도에 대한 관심과 질의가 많았던 탓인지 상당히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중국의 경우 1만 3,000명이나 되는 공증인을 유지하고 있고 경제규모도 나날이 커지고 있는 탓인지 다른 나라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다. 필자는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공증을 받아 오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소개하고 그 이유를 질의하였는 바, 중국에서는 공증에 필요한 서류를 엄격히 요구하고 심사를 철저히 하는 관계로 15일 정도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발표는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이들 3개국은 UINL의 기존 가입국이다), 캄보디아, 대한민국, 라오스, 몽고, 태국, 베트남의 순서로 오후 4시경까지 이어졌고 그 사이 휴식과 점심 식사가 있었다.

과거 프랑스 식민통치를 경험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는 프랑스의 공증제도를 바탕으로 공증제도를 영위하고 있으며, 몽고에서도 1년에 수십만건의 공증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오후 4시부터는 UINL측에서 유럽형 공증제도 및 그 현황에 대한 소개가 있었는데 먼저 아프리카 지역 부회장인 가니우 아데씨가 자국인 베닌의 공증제도 실태를 보고하였다.

다음으로 장 폴 드꼬르 CCNI 위원장이 프랑스의 전자공증 도입 과정을 상세히 소개했다. 전자공증은 캐나다 퀘벡주,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의 순서로 도입되었는데, 프랑스에서는 2000년에 법으로 도입 방침을 정했고, 2005년에 전자서명과 전자문서의 보

관에 관한 규정에 도입되었으며, 2008년부터 정식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먼저 쌍방 당사자가 함께 공증인에게 출두하여 공증할 전자서류를 제시하면 공증인은 이를 확인한 후 이를 스캔하여 PDF파일로 바꾸고 컴퓨터 화면상에서 쌍방 당사자가 서명하게 하며, 그 후 공증인이 전자서명하고 일자와 시각을 적은 후 이를 완성하여 USB에 담아 교부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만들어진 전자문서는 중앙컴퓨터에 저장되며 부동산 관계 서류일 경우 동시에 토지등록사무소에 송부된다고 한다. 2005년 시작 당시에는 불과 35건이던 것이 2010년에는 벌써 1만 건을 초과할 정도로 이용이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격지에 소재한 당사자가 각각의 공증인을 통하여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문서를 동시에 공증할 수 있도록 2014년 시행 목표로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한다.

전자서명의 진정성과 관련하여 프랑스에서는 공증인 면전에서 서명하였다면 그는 자기의 서명을 다툴 수 없다는 원칙이 있으므로 이로써 해결한다고 한다.

끝으로 그는 부동산 거래에 공증을 개입시키는 유럽에 비하여 미국에서는 50배 이상 관련 소송이 많다는 연구결과를 들면서 유럽식 공증제도가 우수하다고 결론지었다.

오후 5시 30분경 발표를 마치고 약 1시간 정도 휴식시간을 가진 후 오후 6시 30분경부터 같은 장소에 위치한 홀에서 스탠딩 뷔페 형식으로 저녁식사가 진행되었다. 주최측인 일본과 UINL의 주요 인사가 인사말을 하였으며 참석자들이 자유로이 돌아다니면서 식사를 하고 담화를 나누는 시간이 2시간 정도 지속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이 2005년에 가입 신청한 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UINL 집행부는 2010년 10월 모로코의 마라케쉬에서 개최되는 총회에서 가입 승인할 것이 확실시된다면서 한국에서 많은 공증인들이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UINL과 대한공증인협회 간에 연회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탓으로 아직 가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또한 그 동안 몇 차례의 교류과정에서 얼굴을 익힌 타케요시 홍고, 사다유끼 후나바시 공증인등을 만나 과거 이들이 변호사 겸업공증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을 국제공증협회에서 적극 지지, 공조한 것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시하였다. 만찬이 종료한 오후 9시경 참가국 일행은 주최 측에서 제공한 버스에 올라 숙소로 귀가하여 제1일의 일정을 마쳤다.

다음 날인 2010년 7월 20일 오전 8시경 일행은 호텔 프론트에 모여 주최 측에서 제공

한 버스로 회의장으로 이동하였고 회의는 9시 30분경부터 속개되었다.

먼저 멕시코 공증인이며 UINL 부회장인 자비에르 아레난도 갈방이 UINL의 설립경위, 역사, 규정 등을 소개하였고 그 조직과 활동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며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가 십수년에 걸친 그들의 국제협회에 대한 의견과 경험을 설명하였다.

그 후 UINL을 대변하여 장 폴 드꼬르 공증인이 지역적, 문화적, 전문 직업가적 측면에서 UINL 산하에 아시아 위원회(Asian Affairs Commission)를 설립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유럽과 남미 등의 사례를 들어 그 필요성을 상세히 제안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한 의견 표명 과정에서 일본의 사사끼 회장은 원칙적으로 그와 같은 조직의 결성에는 찬성하지만 아시아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역내 국가 간에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배경이 상이하고 상호간의 연대의식도 상대적으로 박약하다는 전제하에 아직 첫 번째 회장을 누가 맡을 것인지, 그 조직과 사무국은 어떻게 할 것인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 정도 시간을 갖기를 희망하였고 중국의 왕푸치아 부회장도 이에 찬성하였다.

위 두 나라를 제외한 다른 국가 대표단으로서는 아직 정식 가입국이 아니므로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할 입장은 아니었으나 대부분 내심 그와 같은 조직의 구성을 찬동하는 기색이 역력하였다. 이러한 조직을 통하여 이들은 보다 용이하게 공증제도에 대한 국제적 동향에 접하고 자국의 공증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사전 조율이 없었는지 UINL 집행부는 일본과 중국의 태도에 당황하는 표정이 역력하였으며, 결국 이 문제는 유보된 채 폐회선언이 이루어지고 오후 1시경부터 역시 같은 장소에서 간단한 오찬을 한 후 포럼은 종료되었다. 김진환 수석부협회장과 필자는 그 날 오후 바로 귀국하였다.

비록 UINL이 시도하였던 아시아 위원회의 설립은 추후로 미루어졌지만 서로 사정을 잘 알지 못하였던 아시아 각국의 공증인들이 상호간에 공증 제도에 대한 현황과 사정을 상세히 접하고 공동의 관심사를 확인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의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기로 한 것은 향후 이 지역에서의 공증제도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KNA